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Depression/Anxiety and Social Support in Late Adolescent Males*

Euihyun Kwak¹⁾

Kyong-Mee Chung^{1)†}

Eun-Sung Kim²⁾

¹⁾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²⁾Department of Sports & Leisure Studies, Yonsei University

The current study examined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depression and anxiety in late adolescent males and the impact of social support from parents, teachers, and peers on the trajectories. Participants included 507 10th grade Korean male high school students. Levels of depression and anxiety were measured using a sub-scale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Youth Self Report (K-YSR) every six months for 3years; perceived social support from parents, teachers, and peers was measured once during baseline. The results of latent growth mixture modeling indicated that there are four latent trajectories of anxiety and depression: low(46.8%), moderate(33.1%), high(13.6%), and fluctuating(6.5%). The fluctuating group showed moderate levels of depression and anxiety at the baseline but showed a subclinical level of the problems by the 3rd and the 4th measurement sessions, after which the levels gradually decreased. Social support from parents and peers predicted low, moderate, and high trajectories of the internalized problems; students with lower levels of support were more likely to belong to higher risk trajectories. It was also found that the higher level of parent support in the fluctuating trajectory was the only factor that distinguished it from the high trajectory. These findings suggest that social support from both parents and peers could be useful in predicting the development of internalized problems and that parent support may be a protective factor in high-risk late adolescent males.

Keywords: late adolescent male, depression, anxiety, developmental trajectory, social support

* This work was based on the author's MA thesis.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Brain Korea 21 Plus project from the Ministry of Education, Korea to Yonsei University (2015-11-0016).

† Correspondence concerning this article should be addressed to Kyong-Mee Chung,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Seoul 120-749, Korea. E-mail: kmchung@yonsei.ac.kr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 발육과 다양한 생리적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로서 진학과 학업적 성취라는 중요한 발달 과업을 마주하게 된다(Masten & Coatsworth, 1998). 이 시기에 청소년들은 신체·사회·심리적으로 상당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며 내·외적으로 많은 갈등 상황에 노출됨에 따라 정서 및 행동장애 유병률이 증가하는 등 급격한 심리적 변화 양상이 보고된다(Cicchetti & Rogosch, 2002; Kim & Min, 2006). 청소년기 심리적 부적응은 크게 비행이나 공격과 같은 외현화 문제와, 우울, 불안으로 대표되는 내재화 문제로 구분될 수 있다. 한편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의 경우, 증상 발현 양상이 비슷하고 상호 관련성이 높아서 뚜렷한 구분이 어려우며, 이에 따라 근래에는 하나의 범주로 묶어서 분류하는 것이 추천된다(Ahn, 2009; Hankin, & Abramson, 2001; Mash & Barkley, 2003). 일반적으로 여자 청소년의 경우 내재화 문제, 남자 청소년의 경우 외현화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Gjerde, Block, & Block, 1988; Kang & Kook, 2010).

한편 최근에는 남자 청소년의 우울증 유병률 및 자살률이 증가하면서, 남자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Ahn, 2012; Kim, Kim, & Kim, 2012; Kim, 2014). 외국의 경우, 남자 청소년들의 우울증 유병률이 2006년 4.5%에서 2013년 5.3%로 증가했으며, 일상생활 기능의 심각한 손상을 동반한 우울증 또한 같은 기간 2.6%에서 3.5%로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이 보고되었다(Center for Behavioral Health Statistics and Quality, 2013). 국내의 경우 남자 청소년의 우울감 경험률이 25.5%에 이르며(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2), 남자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전체 사망원인 중 13.3%)인 것으로 밝혀져 관련 연구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Statistics Korea, 2014).

일반적으로 남자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는 발달시기에 따라 그 양상이 달라진다고 알려져 있는데, 청소년 전기에는 대부분이 낮은 수준의 문제를 보이다가, 청소년 후기로 접어드는 만 14-15세부터 문제 수준이 다양하게 분화하는 패턴이 관찰된다(Garber, Keiley, & Martin, 2002; Ge, Lorenz, Conger, Elder, & Simons, 1994). 국내에서 실시된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에 따르면 중학교 시기에 우울 문제를 경험한다고 보고한 남학생의 비율은 약 22-25%였으나, 고등학교 시기에는 그 비율이 27-29%로 상승하는 경향이 보고되었다(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2). 또한 청소년 후기에 높은 수준의 내재화 문제를 겪는 남자의 경우 성인기에도 지속적으로 동일한 문제를 겪으며(Bhatia & Bhatia, 2007; Harrington, Fudge, Rutter, Pickles, & Hill, 1990), 직업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Keenan-Miller, Hammnen, & Brennan, 2007)이 동반되는 등 그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후기 남자 청소년 집단의 내재화 문제의 종단적 발달양상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장기간에 걸친 발달 양상을 분석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이 있다. 잠재성장모형은 종단자료 분석의 한 방법으로, 하위유형인 잠재성장곡선모형(latent growth curve model; LGCM)과 잠재성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ixture model; LGMM)을 적용하면 집단의 발달 양상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집단 내에 잠재되어 있는 이질성을 밝혀내어 발달 양상의 개인차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하다(Chung, 2009; Yeo & Park, 2012).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연구들은 청소년 집단의 내재화 문제 발달에 다양한 하위 궤적이 있음을 밝혀왔다(Brendgen, Wanner, Morin, & Vitaro, 2005; Costello, Swendsen, Rose, & Dierker, 2008; Mezulis, Salk, Hyde, Priess-Groben, & Simonson, 2013; Reinke, Eddy, Dishion, & Reid, 2012; Rodriguez, Moss, & Audrain-McGovern, 2005). 우울, 불안과 같은 대표적인 내재화 문제의 하위 발달양상을 살핀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세 개 이상의 하위 궤적을 보고하였는데, 측정기간 동안 낮음 또는 중간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두 궤적과 더불어 측정기간 중 적어도 1회 이상 높은 수준의 내재화 문제를 경험하는 고위험 궤적이 공통적으로 보고되었다. 고위험 궤적이 보이는 양상은 연구들마다 다양한데, 높은 수준 문제를 보고하는 시기에 따라 크게 네 가지 궤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측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내재화 문제를 보고하는 궤적(Brendgen et al., 2005; Crocetti, Klimstra, Keijsers, Hale III & Meeus, 2008; Miers, Blote, Rooij, Bokhorst & Westenberg, 2012; Olino, Klein, Lewinsohn, Rohde & Seeley, 2010; Reinke et al., 2012; Rodriguez et al., 2005), (2) 청소년 초기부터 내재화 문제 수준이 꾸준히 증가하여 높은 수준에 도달하는 궤적(Brendgen et al., 2005; Costello et al., 2008; Mezulis et al., 2013; Olino et al., 2010; Reinke et al., 2012), (3) 청소년 초기에 높은 수준의 내재화 문제를 보고하다가 감소하는 궤적(Costello

et al., 2008; Legerstee et al., 2013; Mezulis et al., 2013; Olino et al., 2010; Reinke et al., 2012). (4) 초기에는 중간 수준의 불안을 보고했으나, 중간에 높은 수준을 보고한 후 다시 중간 수준으로 감소하는 궤적(Morin et al., 2011).

한편 청소년기 내재화 문제의 발현시기 및 발달양상에는 뚜렷한 성차가 시사됨에 따라(Angold, Erkan, Silberg, Eaves, & Costello, 2002; Shin, Chung & Kim, 2012), 일부 종단연구들에서는 남녀 청소년 집단을 구분하여 내재화 문제의 하위 발달궤적 분석을 시도하였다(Dekker et al., 2007; Kim, 2010). 독일의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4-18세 기간을 추적한 연구(Dekker et al., 2007)에서는 남녀 각각 6개의 하위 발달궤적이 발견되었는데, 측정기간 동안 높은 수준의 우울을 경험하는 궤적은 여자가 2개, 남자는 3개로 서로 다른 양상을 띄었다. 독일에서 이뤄진 10-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안 수준의 변화를 추적한 연구(Legerstee et al., 2013)에서는 여자 청소년의 경우 낮음, 중간, 중간-증가의 세 궤적이 발견된 반면, 남자 청소년에게서는 낮음, 중간 궤적은 동일하게 나타났지만 중간-증가의 궤적 대신 초기에는 높은 수준의 불안을 보고하다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높음-감소 궤적이 보고되었다. 또한 미국의 15-24세의 남자만을 대상으로 우울 수준을 추적한 연구(Stoolmiller et al., 2005)에서는 4개의 하위 발달궤적이 보고되었는데, 측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낮음, 중간, 높음 수준을 유지한 3개의 궤적과 함께 청소년 후기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성인기에 접어들어 급격히 감소하는 궤적이 나타났다. 한편 국내의 경우 한국청소년패널자료를 이용하여 11-14세의 남녀 초기 청소년들의 우울 양상을 분석한 국내연구(Kim, 2010)에서 여자 청소년

의 경우 낮음, 중간, 높음의 세 가지 궤적이 나타난 반면, 남자 청소년에게서는 낮음, 중간, 높은 두 가지 하위 궤적만이 나타났다.

위 결과들로 미루어 볼 때 후기 남자 청소년 집단의 내재화 문제 발달궤적은 여자 청소년들의 궤적과는 상이하며, 발달시기에 따라 하위 궤적의 개수 및 양상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연구의 수가 적고 연구들마다 측정기간이 달라 일반화된 결론을 얻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Stoolmiller 등(2005)의 연구의 경우 미국 내에서도 경제적 수준이 낮고 청소년 범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이루어져, 후기 남자 청소년 집단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최초 측정시기 및 추적 기간의 설정에 따라 초기값과 변화율이 달라지는 잠재성장모형의 특성을 고려할 때(Cole, 2006; Obradović, & Hipwell, 2010), 측정기간이 상이한 Dekker 등(2007)과 Kim(2010)의 연구결과를 후기 남자 청소년 집단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또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평균 1년을 주기로 측정을 시도하였는데, 이러한 측정주기가 청소년들의 내재화 문제를 관찰하는데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연구의 수가 부족하긴 하나 측정주기가 4개월로 짧았던 Morin 등(2011)의 불안 수준 측정 연구의 경우 단기간에 내재화 문제 수준이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다소간 특이한 고위험 궤적을 보인 바 있다. 이에 따라 후기 남자 청소년 집단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해서는 측정 대상을 한정하고 측정주기에 변화를 가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한편 잠재성장모형 접근을 통해 내재화 문제의 하위 발달궤적을 구분하게 됨에 따라, 연구자들은 발달궤적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

는 변인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 신뢰로운 예측요인의 발견은 고위험 궤적에 속할 확률이 높은 청소년들을 조기에 선별하고, 비용-효율적인 개입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임상적 가치가 있다(Cho, 2009). 연구자의 관심에 따라 다양한 심리·사회적 변인들 - 가족 임금(Mezulis et al., 2013; Stoolmiller et al., 2005), 부모의 우울 수준(Fernandez et al., 2013; Stoolmiller et al., 2005), 부모의 과보호 수준(Legerstee et al., 2013), 학교폭력에 대한 노출 수준(Morin et al., 2011), 청소년의 인지적 대처 성향(Mezulis et al., 2013; Miers et al., 2013; Yaroslavy et al., 2013), 술·담배·마리화나 사용(Costello et al., 2008; Rodriguez et al., 2005) 등 - 이 예측 요인으로 언급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부모, 교사, 또래로부터 얻는 사회적 지지 수준은 청소년들이 처한 전반적인 발달 환경을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발달궤적의 예측요인을 밝히고자 한 종단연구들에서 가장 빈번히 검토되어 온 변인이다(Brendgen et al., 2005; Cho, 2009; Costello et al., 2008; Kim, 2010; Needham, 2008; Yoon & Lee, 2010).

사회적 지지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제공되는 긍정적인 자원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청소년 집단 연구에서는 주로 부모, 교사, 또래의 지지로 구분된다(Dubow & Tisak, 1989).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함으로써 청소년 정신건강에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인식되어 왔다(Cho & Lee, 2010; Gould, Greenberg, Velting, & Shaffer, 2003; Kim, 2008).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지의 효과는 이를 지각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사람일수록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사람은 발달단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Brown, Mounts,

Lamborn, & Steinberg, 1993). 특히 국내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 전기에 비해 후기로 갈수록 교사로부터 얻는 지지 보다는 또래로부터 얻는 지지가 우울 등 내재화 문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Yang & Lim, 1998).

기존 중단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의 세 가지 하위 요인 중 부모의 지지 요인은 내재화 문제의 궤적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Brendgen et al., 2005; Cho, 2009; Costello et al., 2008; Kim, 2010; Needham, 2008; Stice et al., 2004; Yoon & Lee, 2010). 즉, 부모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청소년일수록 우울 수준이 낮은 궤적에 속했으며, 이러한 결과는 초기 청소년(11-14세)을 대상으로 한 연구(Brendgen et al., 2005; Kim, 2010) 및 12-25세를 대상으로 한 연구(Costello et al., 2008)에서 공통적으로 보고되었다. 구체적인 하위 발달궤적을 구분하지는 않았으나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해 청소년 우울의 전반적인 발달양상과 부모의 지지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 본 연구들에서도 부모의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의 초기값이 작고, 우울 문제의 증가 속도도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Cho, 2009; Needham, 2008; Stice et al., 2004; Yoon & Lee, 2010).

반면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는 연구에 따라 상반된 결과를 보고한다. 먼저 또래의 지지 변인의 경우 성별에 따라 예측 여부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다. 12-25세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한 연구(Costello et al., 2008)에서는 또래의 지지 수준이 낮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은 궤적에 속했으나, 13-15세의 여자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Stice et al., 2004)에서는 또래의 지지가 우울의 장기적인 변화율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초기 청소년(11-14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Kim, 2010) 남자 청소년들은 또래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낮은 수준의 우울 궤적에 속했으나, 여자 청소년 집단에서는 또래의 지지가 발달궤적을 유의미하게 구분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사의 지지의 경우, 12-25세 남녀를 대상으로 한 해외 연구에서는 우울 하위 발달궤적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Costello et al., 2008), 국내 초기 청소년(11-14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성별에 관계없이 발달궤적을 구분하지 못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im, 2010). 이처럼 일관되지 않은 연구결과들은 사회적 지지의 각 하위 변인이 내재화 문제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표본 집단 및 측정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성별 및 청소년 전 · 후기를 구분하여 내재화 문제의 발달 양상과 사회적 지지 변인과의 관련성을 연구할 필요가 있겠으나, 이들을 구분하여 살핀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아래의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내재화 문제의 급격한 변화 양상을 보고하는 후기 남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울 · 불안 문제를 추적함으로써 내재화 문제 발달의 개인차를 살펴보고자 한다. 측정기간을 고등학교 기간으로 국한함으로써 청소년 후기에 접어든 남학생들의 내재화 문제 발달 궤적에 대한 보다 상세한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둘째, 내재화 문제의 하위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으로써 사회적 지지의 세 가지 하위 변인인 부모, 교사 또래의 지지를 나누어 검토할 것이다. 이후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임상적 의의를 살펴볼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 인문계 남자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설문조사는 2009년 7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평균 4.5개월 간격으로 총 6회에 걸쳐 반복 실시되었다. 첫 번째 설문에 응했던 학생 562명 중 이후 측정회기에서 설문에 응하지 않은 횡수가 1회 이상인 학생들은 총 55명이었으며, 이들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총 507명의 자료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한편, 분석에서 제외된 집단(55명)이 특정한 경향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종분석에 포함된 집단(507명)과 우울·불안 및 사회적 지지 수준의 점수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변인에서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p > .05$.

측정도구

우울·불안

청소년의 우울·불안 문제 수준과 그 발달 궤적을 파악하기 위해 Achenbach(1991)가 개발하고 Oh, Ha, Lee와 Hong(2001)이 표준화한 한국판 청소년 자기행동평가척도(Korean version of Youth Self Report: K-YSR)의 ‘우울·불안’ 소척도를 사용하였다. K-YSR은 총 112문항으로 크게 사회능력 척도와 문제행동증후군 척도로 나뉘며, 문제행동증후군 척도는 우울·불안, 위축, 신체증상, 사회적미성숙, 사고의 문제, 주의집중 문제, 비행, 공격성의 8가지 임상척도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내재화 문제의 하위척도 중 하나로 16문항으로 구성된 ‘우

울·불안’ 소척도를 사용하여 청소년들의 우울·불안 문제를 측정하였다. K-YSR은 각 문제행동 항목에 대하여 0점부터 2점까지 3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불안 문제가 많음을 뜻한다. Oh 등(2001)의 연구에서 ‘우울·불안’ 소척도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84(남자)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측정시기에 따라 .87 - .90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

부모와 교사, 또래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Dubow와 Ulman (1989)의 사회적 지지 평가 척도(Social Support Appraisals Scale)를 Oh, Kim, Do와 Eoh(2005)가 수정·보완하여 만든 사회적 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부모와 교사, 또래의 지지에 대해 각 8개 문항씩 총 2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 별로 0점부터 3점까지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참가자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Kim과 Oh(2005)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부모 .90, 교사 .95, 또래 .91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부모 .92, 교사 .94, 또래 .94로 나타났다.

분석방법

먼저 후기 남자 청소년 우울·불안 문제의 시간에 따른 변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잠재성장분석을 실시했다. 잠재성장분석에서는 각 개인의 반복 측정된 값으로 개별 회귀선을 그린 후, 이로부터 개인들의 초기치의 평균값과 변화율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전체 자료를 설명하는 초기치와 변화율로 이뤄진 함수를 얻게 된다(Muthen & Muthen, 2000). 본 연구에서

는 종속변수인 우울 · 불안 점수의 반복측정된 값을 대상으로 함수의 선형 모형과 2차 함수 모형을 비교하여 비교우위에 있는 모형을 선정했다. 모형 비교를 위해 모형 간 직접적인 비교 방법인 카이스퀘어 차이검정 결과와 함께 이론 모형이 자료와 얼마나 잘 부합되는지를 통해 산출되는 절대적 적합도인 RMSEA, 분석 모형과 기저 모형을 비교하여 얼마나 자료를 잘 설명해주는 지를 알려주는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TLI, CFI 값을 고려하였다(Bentler, 1990; Browne & Cudeck, 1992; Lee & Lim, 2008; McDonald & Marsh, 1990).

선택된 모형의 초기치, 변화율, 이차항 등 성장요인의 평균과 분산의 통계치를 근거로, 자료 내에 잠재되어 있는 질적으로 다른 하위 발달궤적을 도출하기 위해 잠재성장혼합모형 분석을 실시했다. 모형 내 최적의 하위 발달궤적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모형의 적합도와 간명성, 동질성 지표를 비교하였다. 구체적으로 대안 모델과의 비교를 통해 산출되며 값이 적을수록 모형의 적합도와 간명성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AIC),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BIC), Adjective BIC (Adj. BIC) 값과 k-1 개 모형과 k 개 집단을 갖는 모형 간의 적합도를 비교해주는 Lo-Mendell-Rubin의 조정된 χ^2 검정을 고려하였다. 특히 BIC와 Lo-Mendell_Rubin의 조정된 χ^2 검정 결과는 다른 지표들에 비해 잠재성장혼합모형 분석시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로운 것으로 알려져 해당 지표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Nylund, Asparouhov, & Muthen, 2007). 또한 집단 간 경계수준을 알려주며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좋은 entropy 값을 참고하였다(Hixsmall, Duncan, Duncan & Okut, 2004). 이를 통해 각 하위 발달궤적을 구성하는 개인을 확인

하고, 잠재집단을 도출하였다. 이후 최초 자료 수집 시기의 부모, 교사, 또래의 사회적 지지 수준이 개인의 우울 · 불안 하위 발달궤적을 예측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종속변수에 대한 1회 이상의 결측치가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완전제거법(Listwise deletion)을 적용하였다. 완전제거법은 종단연구의 결측치 자료 분석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방법으로 결측치를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분석에서 제외하는 방법이다. 분석에서 제외된 집단과 최종 분석에 포함된 집단 간에 체계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주요 변수들을 대상으로 독립 표본 t-검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잠재성장곡선모형 및 잠재성장혼합모형 분석은 Mplus 4.21을 사용하였다.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한 분석은 공분산 구조모형을 활용하므로 측정 오차를 줄일 수 있고, 잠재된 특성을 활용하여 유형화할 때 최적의 분류를 검증하기 위한 여러 통계적 모델 적합도 지수를 제시해 보다 신빙성있는 분류를 가능케 한다는 장점을 지닌다(Muthen, 2008). 이외에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포함한 모든 분석은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PSS), Windows Version 21.0을 사용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 특성 및 상관관계

주요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범위 등 기술통계치와 해당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각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for Levels of Depression/Anxiety and Social Support from Parent, Teacher, and Peer

Variables	N	M	SD	Range
Depression/Anxiety, 1 st	507	5.51	4.60	0-27
Depression/Anxiety, 2 nd	507	6.81	5.38	0-28
Depression/Anxiety, 3 rd	507	6.98	5.40	0-29
Depression/Anxiety, 4 th	507	6.14	5.30	0-29
Depression/Anxiety, 5 th	507	5.99	5.53	0-30
Depression/Anxiety, 6 th	507	4.49	5.27	0-30
Parent support	502	16.68	5.15	0-24
Teacher support	504	10.64	5.58	0-24
Peer support	505	15.37	4.76	0-24

Table 2

Correlations between Measures

	1	2	3	4	5	6	7	8	9
1. Parent support	1								
2. Teacher support	.32**	1							
3. Peer support	.34**	.33**	1						
4. Depression/Anxiety, 1 st	-.27**	-.13**	-.29**	1					
5. Depression/Anxiety, 2 nd	-.21**	-.12**	-.20**	.72**	1				
6. Depression/Anxiety, 3 rd	-.22**	-.14**	-.24**	.59**	.71**	1			
7. Depression/Anxiety, 4 th	-.18**	-.03	-.24**	.55**	.63**	.64**	1		
8. Depression/Anxiety, 5 th	-.16**	-.05	-.21**	.53**	.60**	.65**	.69**	1	
9. Depression/Anxiety, 6 th	-.20**	-.04	-.19**	.40**	.43**	.46**	.55**	.55**	1

** $p < .01$.

각 Table 1과 Table 2에 제시하였다. 측정기간 동안 후기 남자 청소년들의 우울·불안 문제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가운데 3차 측정시기까지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

는 경향을 보였다. 각 측정시기의 우울·불안 문제는 사회적 지지의 하위척도인 부모, 교사, 또래의 지지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이를 통해 지각된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 · 불안 문제는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후기 남자 청소년의 우울 · 불안 발달궤적의 형태

청소년의 우울 · 불안 문제의 형태를 탐색하기 위하여 선형 모형과 2차 함수 모형의 잠재성장곡선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모형을 대상으로 카이스퀘어 차이검정을 실시한 결과 2차 함수 모형이 선형 모형에 비해 유의미하게 더 나은 모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Delta\chi^2(4, N = 507) = 214.54, p < .001$. 또한 상대적 적합도로써 값이 클수록 더 나은 모형임을 의미하는 CFI, TLI와 절대적 적합도 지수 중 하나로써 값이 작을수록 모형이 자료에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RMSEA 값을 고려할 때(Browne & Cudeck, 1992), 2차 함수 모형이 선형모형에 비

해 보다 자료에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이에 따라 2차함수모형을 선택하였다.

2차 함수 모형의 우울 · 불안 문제의 초기치(intercept)와 변화율(slope), 이차항(quadratic)이라는 성장요인(growth factor)의 평균과 분산은 Table 4와 같다. 청소년이 지각한 우울 · 불안의 변화율 및 이차항의 분산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개인들의 우울 · 불안 발달궤적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집단 내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이질성을 추출하기 위해 초기치와 변화율, 이차항을 중심으로 그 유사성에 따라 하위 발달궤적을 확인해 볼 필요가 시사되었다.

우울 · 불안 문제의 하위 발달궤적의 확인

청소년의 우울 · 불안 문제의 상이한 개인

Table 3

Fit Indices for Growth Functions of Depression/Anxiety Symptoms

	χ^2	df	p	CFI	TLI	RMSEA
Linear	276.68	16	<.001	.852	.861	.173
Quadratic	62.14	12	<.001	.972	.964	.088

Note. CFI = Comparative Fit Index; TLI = Tucker Lewis Index; RMSEA =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Table 4

Growth Factor Parameter Estimates for Latent Growth Curve Model

	M	SE	t	Variance	SE	t
Intercept	5.61	.20	27.72***	18.50	1.56	11.89***
Slope	1.21	.13	9.35***	3.91	0.76	5.13**
Quadratic	-.29	.03	-11.18***	0.13	0.03	4.50**

** $p < .01$. *** $p < .001$.

발달궤적들 간에 초기치와 변화율이 유사한 발달 궤적의 집단이 몇 개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자 잠재성장혼합모형(latent growth mixture modeling) 분석을 시도하였다.

최적의 하위 발달궤적의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모형의 적합도와 간명성의 지표, 동질성 등의 지표들을 비교하여 Table 5에 제시하였다. 비교 결과 궤적의 수가 4개와 5개일 때 집단 간 경계 수준을 알려주는 entropy 값이 나머지 궤적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적합 정도를 나타내는 AIC 및 BIC, Adj. BIC 값도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5개 궤적은 Lo-Mendell-Rubin의 조정된 χ^2 검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통계적인 지표와 이론적 설명 가능성을 종합할 때 최종적으로 가장 합당한 하위 발달궤적의 수를 4개로 선정하였다.

후기 남자 청소년 우울·불안 문제의 하위 발달궤적에 속하는 구성원들의 초기치와 변화율의 평균을 표준화된 계수로 Table 6에 제시하였다. 가장 많은 참가자가 포함된 ‘낮음’ 궤적(46.8%)의 경우 초기치는 2.78으로 매우 낮

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변화율과 이차항의 경우 각각 유의미한 변화가 보고되나 값의 변화가 크지 않아 우울·불안 문제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적은 참가자가 포함된 ‘중간-변화’ 궤적(6.3%)은 초기치가 6.03으로 중간수준이었으나 변화율과 이차항이 각각 7.73와 -1.48로 모두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궤적에 속한 학생들은 측정기간 동안 우울·불안 수준이 급격히 증가했다가 다시 중간 수준으로 회복하는 양상을 보였다. ‘중간’ 궤적(33.1%)의 경우 초기치가 5.63으로 나타났으며, 변화율과 이차항에서 각각 유의미한 변화가 보고되나 값의 변화가 크지 않았다. 해당 궤적의 학생들은 측정기간 동안 중간 수준의 우울·불안 수준을 지속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높음’ 궤적(13.6%)은 초기치가 13.11로써 측정 초기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우울·불안 수준이 보고되다. 또한 변화율과 이차항의 평균이 유의미하지 않아 측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우울·불안 문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4개의 하위 궤적에 대한 평균 사후확률(average posterior

Table 5
Fit Indices for One- to Five-Trajectories Models

	log likelihood	AIC	BIC	Adj. BIC	Entropy	Lo-Mendell-Rubin
1	-9055.05	18140.09	18204.52	18156.90	N/A	N/A
2	-8349.93	16743.85	16836.88	16767.05	.65	-8515.18***
3	-8306.42	16670.83	16793.46	16701.41	.67	-8349.93*
4	-8261.46	16594.91	16747.14	16632.87	.71	-8308.85*
5	-8254.30	16594.61	16776.43	16639.95	.74	-8298.83

Note. AIC =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BIC =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Adj. BIC = Adjusted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 $p < .05$. *** $p < .001$.

Table 6
Growth Factor Parameter Estimates for Four-Trajectories Model

	N	Intercept	Slope	Quadratic
Low	237(46.8%)	2.78 ^{***}	.82 ^{**}	-.22 ^{**}
Fluctuating	33(6.3%)	6.03 ^{**}	7.73 ^{**}	-1.48 ^{**}
Moderate	168(33.1%)	5.63 ^{***}	1.44 ^{**}	-.29 ^{**}
High	69(13.61%)	13.11 ^{***}	-1.07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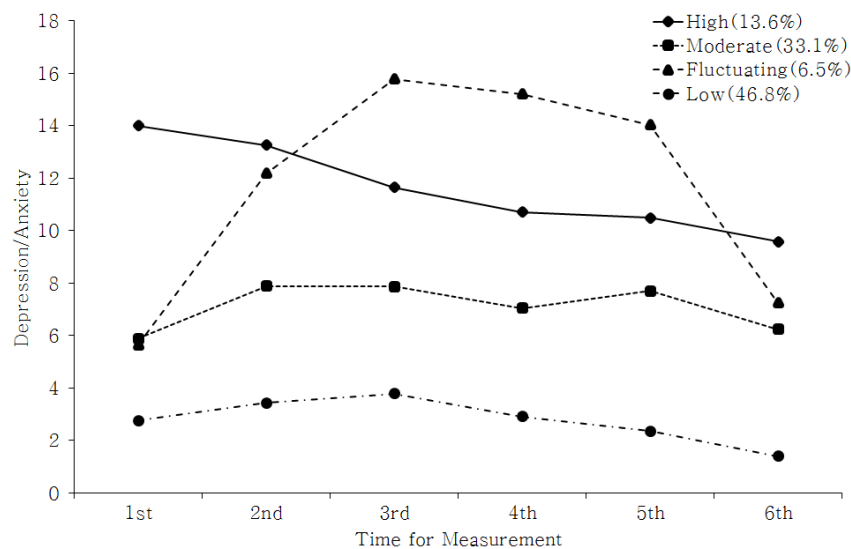


Figure 1. Four trajectories of depression/anxiety symptoms in late adolescent males

probability)은 .82-.86 으로 나타났다. 후기 남자 청소년 우울 · 불안 문제 하위 발달궤적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Figure 1과 같다.

사회적 지지 하위척도의 우울 · 불안 발달궤적 예측

사회적 지지의 하위척도들이 4개의 우울 · 불안 발달궤적을 예측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Table

7에 제시하였다. 기준집단이 ‘높음’ 궤적일 때, 부모의 지지 점수가 높을수록 ‘낮음’, ‘중간-변화’ 그리고 ‘중간’ 궤적에 속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또래의 지지 점수가 높을수록 ‘낮음’ 궤적과 ‘중간’ 궤적에 속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준집단이 ‘중간’ 궤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부모의 지지와 또래의 지지 점수가 높을수록 ‘낮음’ 궤적에 속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변화’

Table 7

Effects of Parent, Teacher, and Peer Support as Predictors in the Trajectories

	High						Moderate				Fluctuating	
	Low		Fluctuating		Moderate		Low		Fluctuating		Low	
	OR	CI	OR	CI	OR	CI	OR	CI	OR	CI	OR	CI
Parent support	1.15***	1.08-1.22	1.10*	1.00-1.20	1.10**	1.03-1.16	1.05*	1.00-1.10	1.00	0.92-1.09	1.05	0.97-1.13
Teacher support	0.97	0.91-1.02	1.01	0.93-1.09	0.98	0.93-1.04	0.99	0.95-1.03	1.03	0.95-1.11	0.96	0.89-1.03
Peer support	1.15***	1.07-1.22	1.10	0.99-1.21	1.08*	1.01-1.16	1.06*	1.01-1.11	1.01	0.93-1.11	1.04	0.96-1.14

Note. OR = Odds Ratio; CI = Confidence Interval.

* $p < .05$. ** $p < .01$. *** $p < .000$.

궤적이 기준집단인 경우, 세 가지 예측변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교사의 지지’ 수준은 기준집단에 상관없이 궤적에 속할 확률을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1) 후기 남자 청소년의 우울·불안 문제가 장기간에 걸쳐 어떻게 발달하며 변화하는지 2) 사회적 지지 요인이 우울·불안 발달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기간 동안 남학생의 우울·불안 문제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가운데 약간 상승하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발달궤적 내에 개인차가 시사되었다. 이에 따라 잠재집단 확인을 위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개의 서로 다른 발달궤적, 즉 ‘낮음(46.8%)’ 궤적, ‘중간(33.1%)’ 궤적, ‘높음(13.6%)’ 궤적, 그리고 ‘중간-변화(6.5%)’ 궤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모, 교사,

또래의 사회적 지지와 우울·불안의 하위 발달궤적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모와 또래의 지지 점수가 낮을수록 우울·불안 문제 수준이 높은 궤적에 속했으며, 교사의 지지는 발달궤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편 ‘중간-변화’ 궤적의 경우 ‘높음’ 궤적에 비해 부모의 지지 요인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의 함의는 아래와 같다.

첫째, 후기 남자 청소년의 우울·불안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집단 내에 잠재되어 있는 이질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시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4개의 서로 다른 우울·불안 발달궤적이 발견되었으며, 이를 통해 후기 남자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 발달 양상이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 초기 남자 청소년(만 11-14세)의 경우 우울 수준이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과 중간 수준인 두 개의 궤적만이 발견된 점(Kim, 2010; Lee, 2010)을 고려할 때, 본 연구결과를 후기 청소년기에 접어들어 일부 남자 청소년

들에게서 내재화 문제가 급격히 늘어나고, 우울 및 불안 장애의 유병률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를 뒷받침한다(Garber et al., 2002; Garfinkel, & Golombek, 1974).

특히 측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낮음, 중간, 높음’ 세 궤적은 기존의 미국(Stoolmiller et al., 2005), 독일(Dekker et al., 2007)에서 실시된 선행연구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었다. 이에 따라 세 궤적은 후기 남자 청소년의 보편적인 내재화 문제 발달 궤적일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세 궤적의 구성 비율이 연구들마다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청소년 후기에 높은 수준의 내재화 문제를 보고하는 궤적의 경우, 미국의 연구에서는 24.4%를 기록한 반면, 독일의 연구에서는 1.9%에 불과했고, 본 연구에서는 두 연구의 중간 수준인 13.6%로 나타났다. 세 연구 결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이처럼 구성 비율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각 연구가 진행된 지역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에서 부분적으로나마 추론할 수 있겠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계층이 우울 및 부정응적인 정신적 문제를 더 많이 겪는 것은 문화 보편적인 현상이다(Link & Phenlan, 1995). 최근에는 단지 가계 소득 수준뿐만 아니라 주거, 교육, 문화적인 여건 등 삶의 질적 차원을 고려한 ‘사회경제적 박탈’이라는 개념으로 사회구조적 변인과 정신건강의 관련성을 탐색하는 시도들도 이어지고 있다(Kahng & Kwon, 2008; Kim, You & Song, 2015). 이러한 인구사회학적인 특성들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에 대해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으나, 선행연구에서는 인구사회학적인 특성들이 한 개인이

접근할 수 있는 자원의 양을 제한함으로써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부정응적인 가족관계 등을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Bradley & Corwyn, 2002)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결과를 고려해 볼 때, 미국에서 실시된 연구의 경우 경제수준이 낮고 청소년 범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이뤄졌으며, 이와 반대로 독일에서 실시된 연구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청소년들이 측정 중간에 탈락하는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이들 집단을 과소대표 할 가능성이 시사된다. 한편 본 연구가 실시된 지역의 경우, 지역의 경제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1인당 지역내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이 해당 도내의 32개 행정구역 중 15위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으며(Statistics Korea, 2011),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지역문화지수에서는 국내 상위권으로 분류된 바 있다(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3). 이러한 특성들은 본 연구가 이뤄진 지역이 중상 수준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지역임을 시사한다. 각 연구가 실시된 지역의 위와 같은 특성과 높음 궤적의 구성비율 간의 일관적인 경향을 고려할 때, 청소년이 처한 사회경제적 지위 및 지역의 생활환경 등이 이들의 내재화 문제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기존 후기 남자 청소년 연구들에서 보고되었던 ‘낮음, 중간, 높음’ 세 가지 궤적 외에 우울 · 불안 수준의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중간-변화’ 궤적이 관찰되었다. ‘중간-변화’ 궤적의 발달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초에는 중간 수준의 우울 · 불안을

보고하다가 이후 급격히 상승하여 ‘높음’ 궤적과 유사한 수준을 보고한 후, 다시 중간 수준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짧은 기간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중간-변화’ 궤적의 발견은 먼저 본 연구의 측정방법 상의 특징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종단연구들은 평균 1-2년 주기로 내재화 문제 수준을 측정하였다. 그러나 청소년 집단이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한 집단이며, 짧은 기간에도 급격한 심리적 변화를 겪을 수 있는 시기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측정 주기는 청소년기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평균 약 4.5개월을 주기로 반복 측정을 실시하여 후기 남자 청소년의 우울·불안 수준의 변화를 추적하였다. 이를 통해 단기간에 역동적인 심리적 변화를 보이는 ‘중간-변화’ 궤적과 같은 집단 또한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다소 특이한 고위험 궤적은 본 연구와 유사하게 4개월 주기로 불안 수준을 측정한 바 있는 Morin 등(2011)의 연구에서도 관찰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를 미루어 볼 때, 신체·사회·심리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는 청소년 집단의 발달양상을 살펴보는 데 있어 측정 주기를 단축하고 반복적으로 측정을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더불어 ‘중간-변화’ 궤적의 발견은 특정 시점의 우울·불안 수준이 유사하더라도 과거의 우울·불안 수준의 발달궤적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는 ‘높음’ 궤적과 ‘중간-변화’ 궤적에 속한 청소년들이 3, 4회 측정시기에 유사한 수준의 우울·불안 문제를 보고한 바 있다. 만약 측정이 일회성으로 끝났다면 이들은 측정시점에서의 문제 수준에 따라 단일한 집단으로 다루어졌을 것이

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높음’ 궤적에 속한 학생들은 그 수준을 유지한 반면에, ‘중간-변화’ 궤적의 학생들은 다시 예년의 수준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선행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정 측정 시점에 유사한 수준의 우울을 보고하더라도 과거의 발달 궤적이 달랐던 집단들 간에는 전반적인 문제 행동, 학업능력, 과거 정신병력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기능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과거에 높은 수준의 문제를 보인 궤적일수록 저하된 기능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Dekker et al., 2007). 특히 이러한 결과는 실제 임상 장면에서 청소년 내재화 문제에 대한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과거 발달궤적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을 제기한다.

둘째, 사회적 지지의 세 가지 하위 변인 중 부모, 또래의 지지 수준이 후기 남자 청소년의 우울·불안 발달궤적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초 측정 시에 부모 및 또래의 지지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남학생일수록 우울·불안 수준이 낮은 발달 궤적에 속하였음을 의미한다. 특히 부모의 지지는 기존에 남자 청소년 및 남녀 청소년을 모두 포함한 선행연구(Brendgen et al., 2005; Costello et al., 2008; Kim, 2010)에서도 예측요인으로 나타나 세 가지 하위 요인 중 가장 신뢰로운 예측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국내 청소년들은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급격히 증가하며, 이에 따라 부모와 함께하는 물리적 시간이 줄어들고 상호작용하는 빈도 또한 감소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지지 변인이 내재화 문제 발달의 예측요인으로서 나타나는 것은 부모-자녀의 관계가 단순히 양자 간의 관계를 넘어

청소년의 스트레스 관리 능력, 신체 운동 능력(Uchino, Cacioppo, & Kiecolt-Glaser, 1996), 학교생활적응(Choi, 2004; Lee & Chung, 2004) 등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영역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부모의 지지 변인과 관련해 또 하나 주목할 만 한 연구 결과는 부모의 지지가 ‘중간-변화’ 궤적과 ‘높음’ 궤적을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중간-변화’ 궤적의 청소년들은 ‘높음’ 궤적에 비해 부모의 지지를 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했는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부모의 지지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집단일수록 위기 상황에서 적응적으로 대처하여 예년의 기능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기존의 이론적 연구(Rutter & Soucar, 2002)에서는 부모의 지지가 스트레스원(stressor)이 개인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심리적 영향을 완화함으로써 청소년 내재화 문제의 보호요인으로 기능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본 연구 결과는 이러한 기존의 논의를 경험적으로 지지한다.

또래의 지지 역시 후기 남자 청소년의 우울 · 불안 발달 궤적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초기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Kim, 2010; Stice et al., 2004)에서는 또래의 지지 수준이나 또래애착이 우울 · 불안 궤적을 예측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영역의 성차가 시사된다. 성차가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으나, 성별에 따라 또래 관계를 맺는 양상 및 또래 관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추론해 볼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여자 청소년들은 집중적이고 친밀한 소규모 또래 관계를 맺는 반면, 남자 청소년의 경우 또래지위(peer status)에 관심이 많으며, 넓은 범위에서

서열화 된 또래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urman & Buhmester, 1992; Maccoby, 1990). 낮은 또래 지위는 남자 청소년들의 대인관계, 품행문제, 학교적응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Lee & Kim, 2011), 우울과도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Kiesner, 2002).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고려할 때, 또래 지위에 민감한 남자 청소년일수록 또래의 지지 수준이 내재화 문제의 발달을 보다 유의미하게 예측할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겠다.

끝으로 교사의 지지 변인은 후기 남자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 발달궤적을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초기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Cho, 2009; Kim, 2010)와는 일치하나, 해외 초기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Reddy et al., 2003)와는 불일치하는 결과이다. 연구의 수가 제한적이며 측정기간이 달라 직접적 비교가 어려우나, 이러한 결과는 학생-교사의 관계가 청소년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에 문화적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국내 청소년들은 공교육 체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환경 속에서 과도한 입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사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이 줄어든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Cho, 2009; Wo & Kim, 2011). 더불어 발달시기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적 지지원의 상대적 중요도 또한 본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선행연구결과에 따르면, 중학교 시기 청소년들의 우울 수준에 미치는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은 부모-교사-또래 순으로 나타나나, 고등학교 시기가 되면 부모-또래-교사의 지지 순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Yang &

Lim, 1998). 이에 따라 본 연구 결과는 교사-학생 간의 긍정적 상호작용의 감소와 함께 교사의 지지가 내재화 문제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드는 청소년 후기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1개 남자 고등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연구 결과를 국내 청소년 집단 일반에게 적용하기에는 제한적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 수집 지역 및 표본의 크기를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더불어 표집시에는 내재화 문제의 평균 수준 및 전반적인 분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의 경제적 수준 및 문화지수 등을 고려한 세심한 계획과 실시가 동반된다면 보다 대표성있는 연구의 실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추후 연구에서는 발달단계 간의 차이를 예측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심리사회적 변인들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수집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외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의 우울 수준, 청소년의 인지적 대처능력, 알콜, 담배 등 약물 사용 변인에 대한 연구가 실시되었으며, 관련 변인들에 대한 국내 자료 수집과 분석이 실시된다면 발달단계적 특성을 예측하는 스크리닝 검사의 개발이나, 고위험 집단에 대한 개입 계획의 수립에 있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수준을 우울·불안의 예측요인으로써 검토하려는 목적으로 최초 측정시기에만 1회 측정하였다. 그러나 청소년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수준은 발달단계에 영향을 받으며(Brown et al., 1993), 다양한 심리사회적 변인과 상호작용하는 유동적인 변인임을 고려할 때(Gould et al.,

2003), 사회적 지지 수준의 반복 측정 및 분석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사회적 지지 수준이 우울·불안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두 변인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보다 설득력있는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끝으로 청소년의 주관적인 자기보고 외에 상호작용 행동 관찰 및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부모보고 자료 등 보다 다각적인 측정이 실시된다면 본 연구 결과를 보다 풍부히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통해 자료수집 방법에 따른 연구 결과의 차이를 확인해 볼 수 있겠으며, 사회적 지지가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References

- Achenbach, T. M. (1991). *Child Behavior Checklist/4-18*.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 Ahn, J. (2012). Depression, Suicide, and Korean Society. *Journal of Korean Medical Association*, 55, 320-321.
-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 238.
- Bhatia, S. K., & Bhatia, S. C. (2007). Childhood and adolescent depression. *American Family Physician*, 75, 73-80.
- Bradley, R. H., & Corwyn, R. F. (2002). Socioeconomic status and child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3, 371-399.
- Brendgen, M., Wanner, B., Morin, A. J., & Vitaro, F. (2005). Relations with parents and with peers, temperament, and trajectories of

- depressed mood during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3, 579-594.
- Brown, B. B., Mounts, N., Lamborn, S. D., & Steinberg, L. (1993). Parenting practices and peer group affiliation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4, 467-482.
- Browne, M. W., & Cudeck, R. (1992).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1, 230-258.
- Center for Behavioral Health Statistics and Quality. (2014). *Results from the 2013 National Survey on Drug Use and Health: Mental health findings*. Rockville, MD: Substance Abuse and Mental Services Administration.
- Cho, J. A. (2009). The effects of parents, peers and teachers upon changes in mental health on the part of adolescents: A focused on depression and anxiety. *Studies on Korean Youth*, 20, 167-192.
- Cho, Y. S., & Lee, K. N. (2010). Effects of adolescents alienation, depression, family environment and school maladjustment on suicidal ideation.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28, 27-37.
- Choi, T. J. (2004). Adjustment to school and mental health of high school students: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achment and horizontal · vertical individualism - Collectivism and its influence. *Studies on Korean Youth*, 15, 117-152.
- Chung, I. J. (2009). The role of heterogeneity in the developmental trajectory of adolescent delinquency. *Studies on Korean Youth*, 20, 253-280.
- Cicchetti, D., & Rogosch, F. A. (2002). A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perspective on adolescence: Clinical adolescent psychology: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and treat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0, 6-20.
-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 310-357.
- Cole, D. A. (2006). Coping with longitudinal data in research o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0, 20-25.
- Costello, D. M., Swendsen, J., Rose, J. S., & Dierker, L. C. (2008). Risk and protective factors associated with trajectories of depressed mood from adolescence to early adulthood.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6, 173-183.
- Crocetti, E., Klimstra, T., Keijsers, L., Hale III, W. W., & Meeus, W. (2009). Anxiety trajectories and identity development in adolescence: A five-wave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8, 839-849.
- Dekker, M. C., Ferdinand, R. F., Van Lang, N. D., Bongers, I. L., Van Der Ende, J., & Verhulst, F. C. (2007).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depressive symptoms from early childhood to late adolescence: gender differences and adult outcom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8, 657-666.
- Dubow, E. F., & Tisak, J. (1989). The relation between stressful life events and adjustmen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role of social support and social problem-solving skills. *Child*

- Development*, 1412-1423.
- Dubow, E. F., & Ullman, D. G. (1989). Assessing social suppor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survey of children's social suppor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 52-64.
- Furman, W., & Buhrmester, D. (1992). Age and sex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networks of personal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63, 103-115.
- Garber, J., Keiley, M. K., & Martin, N. C. (2002).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adolescents' depressive symptoms: predictors of chang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0, 79-95.
- Ge, X., Lorenz, F. O., Conger, R. D., Elder, G. H., & Simons, R. L. (1994). Trajectories of stressful life events and depressive symptoms during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30, 467-483.
- Gjerde, P. F., Block, J., & Block, J. H. (1988). Depressive symptoms and personality during late adolescence: Gender differences in the externalization-internalization of symptom ex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7, 475-486.
- Gould, M. S., Greenberg, T. E. D., Velting, D. M., & Shaffer, D. (2003). Youth suicide risk and preventive interventions: A review of the past 10 year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42, 386-405.
- Hankin, B. L., & Abramson, L. Y. (2001). Development of gender differences in depression: An elaborated cognitive vulnerability-transactional stress theory. *Psychological Bulletin*, 127, 773-796.
- Harrington, R., Fudge, H., Rutter, M., Pickles, A., & Hill, J. (1990). Adult outcomes of childhood and adolescent depression: I. Psychiatric statu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7, 465-473.
- Hix-Small, H., Duncan, T. E., Duncan, S. C., & Okut, H. (2004). A multivariate associative finite growth mixture modeling approach examining adolescent alcohol and marijuana use.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26, 255-270.
- Kahng, S. K., & Kwon, T. Y. (2008). An exploratory study on the effects of socioeconomic status on depressive symptoms across lifespan. *Mental Health & Social Work*, 30, 332-355.
- Kang, H. J., & Kook, S. H. (2010). Patterns related to parent and adolescent reports of problem behavior in adolescents with internalization and externalization disorder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9, 907-925.
- Kiesner, J. (2002). Depressive symptoms in early adolescence: Their relations with classroom problem behavior and peer statu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2, 463-478.
- Kim, B. K., & Min, B. B. (2006). The relationship among perceived parenting behaviors, temperament, character, and depression in adolescenc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5, 221-236.
- Kim, G. M., Kim, J. W., & Kim, J. H. (2012). Current state of research on youth depression and suicide prevention. *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55, 356-361.

- Kim, H. J. (2008). Effect factors of adolescences' suicide risk.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27, 69-93.
- Kim, J. H., You, J. W., & Song, I. H. (2015). Effects of socioeconomic deprivation on depressive mood: Analysis of the moderating effect of age.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5, 42-70.
- Kim, S. W. (2010). The heterogeneous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adolescent depression and their predictors focusing on gender differences. *Studies on Korean Youth*, 21, 171-192.
- Kim, W. K. (2014).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factors in suicidal ideation among Korean youth. *Studies on Korean Youth*, 25, 199-231.
- Lee, H. G., & Kim, H. W. (2011). Gender differences on the characteristics and affecting factors of peer relation problems among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6, 43-68.
- Lee, H. S., & Lim, J. H. (200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AMOS 7.0*. Seoul, Korea: Bobmunsa Co.
- Lee, J. S., & Chung, H. J. (2004). The relations among adolescent's perception of parents' marital relationship, attachment with their parents, and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Korean Management Association*, 22, 47-61.
- Lee, J. Y., & Oh, K. J. (2010). The effects of temperament and gender on adolescent depressive-delinquent comorbid class: A latent profile analysi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9, 53-72.
- Legerstee, J. S., Verhulst, F. C., Robbers, S. C., Ormel, J., Oldehinkel, A. J., & van Oort, F. V. (2013). Gender-specific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anxiety during adolescence: Determinants and outcomes. The TRAILS Study. *Journal of the Canadi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2, 26.
- Link, B. G., & Phelan, J. (1995). Social conditions as fundamental causes of diseas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5, 80-94.
- Maccoby, E. E. (1990). Gender and relationships: a developmental account. *American Psychologist*, 45, 513-20.
- Mash, E. J., & Barkley, R. A. (Eds.). (2003). *Child psychopathology*. New York, NY: Guilford Press.
- Masten, A. S., & Coatsworth, J. D. (1998). The development of competence in favorable and unfavorable environments. Lessons from research on successful children. *The American Psychologist*, 53, 205-220.
- McDonald, R. P., & Marsh, H. W. (1990). Choosing a multivariate model: Noncentrality and goodness of fit. *Psychological Bulletin*, 107, 247-255.
- Mezulis, A., Salk, R. H., Hyde, J. S., Priess-Groben, H. A., & Simonson, J. L. (2014). Affective, biological, and cognitive predictors of depressive symptom trajectories in adolescenc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2, 539-550.
- Mers, A. C., Blöte, A. W., De Rooij, M., Bokhorst, C. L., & Westenberg, P. M. (2013). Trajectories of social anxiety during adolescence and relations with cognition, social competence, and temperament.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1, 97-110.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3). *Comparison of regional cultural indices*.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2). *The eighth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Retrieved from <http://yhs.cdc.go.kr>
- Morin, A. J., Majano, C., Nagengast, B., Marsh, H. W., Morizot, J., & Janosz, M. (2011). General growth mixture analysis of adolescents'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anxiety: the impact of untested invariance assumptions on substantive interpretation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18, 613-648.
- Muthén, B. (2008). Latent variable hybrids: Overview of old and new models. *Advances in Latent Variable Mixture Models*, 1, 1-24.
- Muthén, B., & Muthén, L. K. (2000). Integrating person centered and variable centered analyses: Growth mixture modeling with latent trajectory classes.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24, 882-891.
- Needham, B. L. (2008). Reciprocal relationships between symptoms of depression and parental support during the transition from adolescence to young adulthood.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7, 893-905.
- Nelemans, S. A., Hale, W. W., Branje, S. J., Raaijmakers, Q. A., Frijns, T., van Lier, P. A., & Meeus, W. H. (2014). Heterogeneity in development of adolescent anxiety disorder symptoms in an 8-year longitudinal community stud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6, 181-202.
- Nylund, K. L., Asparouhov, T., & Muthén, B. O. (2007). Deciding on the number of classes in latent class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A Monte Carlo simulation stud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4, 535-569.
- Obradović, J., & Hipwell, A. (2010). Psychopathology and social competence during the transition to adolescence: The role of family adversity and pubertal development.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2, 621-634.
- Oh, K. J., Ha, E. H., Lee, H., & Hong, K. H. (2001). *K-YSR*. Seoul, Korea: Chung Ang Aptitude Publishing Co.
- Oh, K. J., Kim, E. Y., Do, R. M., & Eoh, Y. K. (2005). Poverty and psychosocial adjustment of adolescents: Exploration of risk factors and protective factor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4, 53-71.
- Olino, T. M., Klein, D. N., Lewinsohn, P. M., Rohde, P., & Seeley, J. R. (2010). Latent trajectory classes of depressive and anxiety disorders from adolescence to adulthood: Descriptions of classes and associations with risk factors. *Comprehensive Psychiatry*, 51, 224-235.
- Reddy, R., Rhodes, J. E., & Mulhall, P. (2003). The influence of teacher support on student adjustment in the middle school years: A latent growth curve stud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5, 119-138.
- Reinke, W. M., Eddy, J. M., Dishion, T. J., & Reid, J. B. (2012). Joint trajectories of symptoms of disruptive behavior problems and

- depressive symptoms during early adolescence and adjustment problems during emerging adulthood.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0, 1123-1136.
- Rodriguez, D., Moss, H. B., & Audrain-McGovern, J. (2005). Developmental heterogeneity in adolescent depressive symptoms: Associations with smoking behavior. *Psychosomatic Medicine*, 67, 200-210.
- Shin, M. J., Chung, K. M., & Kim, E. S. (2012). Gender differences in depression and anxiety among Korean adolescents: Onset and developmental chang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1, 93-114.
- Sourander, A., Helstelä, L., & Helenius, H. (1999). Parent-adolescent agreement on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34, 657-663.
- Statistics Korea. (2011).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by economic activity*. Retrieved from <http://www.kosis.kr>
- Statistics Korea. (2014). *Annual report on the cause of death statistics*. Retrieved from <http://www.kostat.go.kr>
- Stice, E., Ragan, J., & Randall, P. (2004). Prospective relations between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Differential direction of effects for parent and peer support.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3, 155-159.
- Stoolmiller, M., Kim, H. K., & Capaldi, D. M. (2005). The course of depressive symptoms in men from early adolescence to young adulthood: Identifying latent trajectories and early predictor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4, 331-345.
- Uchino, B. N., Cacioppo, J. T., & Kiecolt-Glaser, J. K. (1996).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physiological processes: A review with emphasis on underlying mechanisms and implications for health. *Psychological Bulletin*, 119, 488-531.
- Wo C. Y., & Kim, P. H. (2011). The multidimensional structure analysis of variables related to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 219-240.
- Yang, D. K., & Lim, Y. S. (1998).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er on the adolescent's problem behaviors.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Social Issues*, 4, 55-74.
- Yeo, S. S., & Park, S. H. (2012). An application of latent growth modeling: Use of curriculum-based measurement as longitudinal data. *Asian Journal of Education*, 13, 247-273.
- Yoon, M. S., & Lee, J. K. (2010). A longitudinal effect of parent attachment on depression in early adolescence.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26, 69-92.

Received June 9, 2015

Revised December 10, 2015

Accepted December 29, 2015

후기 남자 청소년의 우울·불안 발달궤적과 사회적 지지

곽 의 현 정 경 미 김 은 성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연세대학교 스포츠레저학과

본 연구에서는 후기 남자 청소년의 우울·불안 문제의 하위 발달 궤적을 확인하고, 발달 궤적을 예측하는 변인으로써 사회적 지지 변인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경기도 소재 남자 고등학교 507명의 자료를 만 2년의 기간 동안 총 6회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남자 고등학생들의 우울·불안 수준은 청소년자기행동평가척도(YSR) 중 우울·불안 소척도를 사용하여 매 측정 시기마다 반복측정 되었으며, 부모, 교사, 그리고 또래의 지지 수준이 최초 측정시기에 1회 수집되었다. 잠재성장곡선모형을 적용한 결과 남자 청소년의 우울·불안 문제의 변화는 2차 곡선모형이 적합하였으며 변화율의 평균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변화율에 있어서 개인차가 유의미하여 잠재성장혼합모형을 적용해 하위 발달궤적을 조사한 결과, 4가지 궤적이 확인되었다. 초기치와 변화율을 고려하여 각각 ‘낮음’, ‘중간-변화’, ‘중간’, ‘높음’ 궤적이라고 명명하였다. 사회적 지지의 하위 변인들이 서로 다른 궤적에 속할 확률을 예측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각의 궤적을 기준집단으로 하여 분석할 때, 부모의 지지와 또래의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불안 수준이 낮은 궤적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함의와 추후 연구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후기 남자 청소년, 우울, 불안, 발달궤적, 사회적지지